

海軍 落島 홍보단 을 따라



강 재 복

(기철 경남지부)

9월 17일 인천에 있는 친구들의 전송을 받으며 설레임과 기대속에 해군 960함에 승선하니 정오, 백고동소리도 요란하게 닦을 울린 홍보함은 수심이 얇은 서해를 빠져나가는데 애를 먹는것 같았다.

단장 채보병중령과 함장 장기성소령의 인사말씀이 있은후 증식, 함상서는 식사시간이 제일즐겁다. 한국 부인회에서 갖고온 통닭과 맛있게 장만해온 반찬으로 포식을 했다.

인천앞바다를 벗어나니 과연 황해 바닷물은 빨물로 누렁다. 초가을 날씨는 쾌청 항속도는 10노트 항해하기는 기막히게 좋은 날씨 같았다.

앞으로 약 한달간의 함상생활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질린다. 갑판(甲板)에 나가보니 넷명의 수병과 이야기 꽃을 피웠다. 특히 함상의 삼대금지(三大禁忌 Taboo)는 술, 여자, 휘파람이라고 했다. 지루한 긴 항해(밤낮 2일)를 하는동안 서남해의 섬들과 바다 그리고 하늘, 과연 이조(李弼)의 유배시인(流配詩人)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사가 나올만한 그런 결정이었다. 민간인으로는 기자 2명 수협(水協), 가협(家協) 그리고 나까지 5명이었다. 함상에서 우리들은 사관대우(장교)를 받았었다. 섬마다 슬한 전설과 낭만들이 있었다. 목적지 손목도부터 마지막섬인 매물도 까지 20여개의 낙도, 육지에서(麗水) 30여마일 떨어진 평도(전남 여천군 삼산면 거문리)는 섬주민들의 환대를 잇을수가 없었다. 성십것 빛은 고무마주를 싱싱한 생선과 조개종류의 안주, 생활수준도 천차만별 끼니를 잇기 어려운 낙도가 있나하면 육지의 농어촌 못지 않는곳도 있었다.

주로 순회한 지역은 행정구역이 전남 여천군 삼산면 관내와 경남 통영군 육지면 관내의 낙도들이었다. 여기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문제였다. 면소재지가 있는 육지도와 금오도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죽어가는게 숙명처럼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섬주민들은 기생충 감염율이 80%이상인 것 같았고(특히 회충) 피부병과 소화기 계통의 병 그리고 외과적 질환이 상당수가 있었다.

내가 생각전에는 주민들의 위생관념과 식생활개선이 문제였다.

통영군내의 학교도, 비진도 등은 자가 발전시설에 집집마다 T.V수상기가 거의 다 있고 간이상수도 육지와 무선전화등 문명의 혜택을 다 입고 있었으며 호당소득(戶當所得)이 웬만한 육지보다도 높은 7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놀랄 정도였다. 아열대 특용작물인 밀감과 마늘, 그리고 활선어(活鮮魚) 수출등으로 부유했다. 이런곳은 주민들이 단합이 잘되고 잘살아보겠다는 의욕이 강하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어떤섬(연화도)은

육지의 섬과 자매결연을 맺어 육지에 초청하면 어린 학생들(국민교생)의 정서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석 이틀전 배를 육지항에 정박해놓고 떡을 해다가 달밤에 갑판에서 떡파티를 하는 때,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께 묵념을 올린후 장병들의 노래와 장기(長技)자랑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낙도를 들때마다 어린학동(學童)들과 물을(陸地) 그리는 섬처녀들이 손을 흔들며 안녕히 가세요 내년에도 꼭들려 주세요 하는 간절한 애원을 귀에 쟁쟁하게 남겨두고 25일 간의 긴 여로의 항해를 마치고 진해에 귀항하여 부산으로 오니 연도에는 벌써 농가의 감이 익고 벼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 있었다. 참으로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다.

가정의학백과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의식(意識)이 한때 몽롱하다든지 기운을 잃는 것을 실신(失神)했다고 말하는데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면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여하튼 실신을 하거나 혼수에 빠지면 자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므로 주위는 놀라게 된다.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사람이면 몰라도 갑자기 이런 번을 당하면 큰일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의식장애를 일으킨 사람을 보면 먼저 몸아무거나 힘차게 잡아서 혼수의 정도를 알아보고 손발의 좌우마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한다. 다음 의상 특히 머리의상의 유무를 확인해 보고 숨을 쉴게 해야 한다. 그 숨이 쉬는 과 실념세가 나면 당뇨병, 오줌냄새면 뇨독증, 알콜냄새면 급성알콜중독으로 판

단한다.

뇨독증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오줌이 나오지 않게 되어 오줌에 배출될 성분이 혈액속에 들어와 생기는 것인데 몸이 노곤하고 식욕이 없고 토기(吐氣)가 있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면 중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의식장애인이 심호흡을 하고 있으면 뇌출혈, 당뇨병성혼수를 생각할 수 있다. 또 눈의 한쪽이 등공(瞳孔)을 열고 있으면 뇌내상해, 양쪽이 반쯤열고 있으면 수면제중독을 생각할 수 있다. 뇌속의 장애에 의한 혼수는 손발을 높이 치켜 올렸다가 놓으면 그대로 바로 떨어지고 만다.

이처럼 혼수상태는 위험한 것이므로 방치해 두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다행히 증상이 가벼우면 집에

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치료방법이 크게 발달했으므로 입원하여 완전하게 치료를 받으면 병의 경과를 좋게 하여준다.

혼수가 일어나면 절대안정을 해야하므로 병자를 조용히 운반하여 누워있도록 해야한다. 또 혼수일 때 주의할 것은 구토가 생겨서 토한 물질이 기관지 안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얼굴을 옆으로 해서 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는 의식이 없으므로 물을 입안에 넣어 주어서는 안된다.

혼수가 일어났을때 절대안정을 해야한다고 병자를 옮기는데 너무 신경질을 부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긴급을 요할때는 구급차라도 불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는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시설에서 조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라 하겠다.